



“이젠 ‘쓰는 기사’ 넘어 ‘발견되는 뉴스’ 설계해야”

이재승 카카오 부사장 한라일보서 특강
“AI 시대 핵심은 검증… 현장이 경쟁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뉴스 소비가 만연해진 시대에 언론이 독자들에게 기사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진입로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재승 카카오 지역협력 담당 부사장은 14일 한라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I 시대, 기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하고, 독자들이 언론사 웹사이트나 포털에서 검색해 기사를 보는 시대는 끝났다”며 “SNS와 AI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를 골라서 보고, 짧은 영상과 카드뉴스 등 새로운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사 자체가 아니라 발견되는 뉴스를 설계해야 한다”며 “짧은 층들이 지역의 기사를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고 원문 기사에까지 닿게 할 것인지 게이트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더 이상 영상과 SNS는 부가적인 채널이 아니라 뉴스의 첫 화면”이라며 “기사 하나를 작성하면 60초 숏폼 영상, 카드뉴스, 요약문, 오디오·팟캐스트 등 다양한 포맷으로 재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 기자의 역할이 ‘쓰기’에서 ‘판단’으로



옮겨갔다고도 했다. 그는 “기사 작성과 포맷 형성 과정에서 AI에게 스크립트 초안, 자막, 번역, 자료 비교·분석, 요약 등을 맡길 수 있다”며 “기자는 기사의 맥락을 읽고, 취재원을 선택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최종 문장의 게이트키퍼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복제하기 힘든 지역언론의 ‘원본’으로 현장과 관계, 기억, 데이터, 책임을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기자는 더 잘 묻고, 틀릴 수 있음을 알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제주에 있는 기자가 직접 보고, 사람을 만나고, 과거를 기억하고,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역할이 곧 지역언론의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예레초 대만 교류길 지역사회가 함께 연다 예레휴양단지 발전위 850만원 지원 힘 보태

제주 예레초등학교와 대만 현지 초등학교의 국제 교류에 지역사회가 힘을 보탤다.

예레초 6학년 학생 17명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대만을 방문한다. 대만 차오위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을 위해서다.

예레초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 특색 과목인 ‘예레 생태’를 통해 대만 학생들에게 지역의 생태 환경을 공유하는 활동을 이어 왔다. 대만 현지에서의 만남은 화상 수업에 그쳤던 교류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넓히는 의미가 있다.

올해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예레휴양단지 발전위원회’(위원장 성병주)가 도움을 건넸다. 제주시교육청 지원금(2000만원)의 부족분을 선뜻 지원하면서다.



발전위는 14일 예레초를 찾아 발전기금 850만원을 전달했다.

성병주 발전위원장은 “예레초 학생들이 국제교류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에 지역사회가 동참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꿈을 넓혀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건협제주 하나로마트서 건강 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본부장 임정식)는 지난 11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오라점점에서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뇌파·맥파를 활용한 스트레스 검사와 심전도리듬분석검사를 진행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및 심혈관 관련 건강상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신화월드, 발달장애인 직무역량 강화

(재)제주신화월드 교육일자리 지원센터(센터장 박진옥)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지난 12일 제주신화월드에서 도내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재직근로자 능력향상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은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미래 자립 생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바르게 ‘줄·줍·즐’ 캠페인 가파도서 전개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좌중언)와 산악회(회장 고창문)는 지난 13일 가파도 일원에서 임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줄(이고)·줍(고)·즐(즐거자)’ 캠페인을 전개해 해안가를 정화했다.



연동지구대 생활안전협 추석 맞이 기부

제주시 연동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유영택)가 지난 11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20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물품을 연동주민센터(동장 현경호)에 기탁했다.

유영택 회장은 “어려운 이웃이 훈훈하고 풍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적십자사 자선만보 걷기대회 개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는 지난 13일 제주시에서 고의숙 교육감, 이상봉 제주시장, 적십자 봉사원, 유관기관 관계자, 도민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79주년 기념 제주사랑 자선만보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사육을 출발해 지정된 코스(약 4km)를 함께 걸으며 건강과 친목을 다지고, 나눔 문화 확산과 인도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인 참가비와 기업·단체의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무거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도내 난치병 학생들의 의료비와 맞춤형 학습 지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인의 이상향’ 제12회 이어도 축제 성료

청년단체 이어도청년지킴이(회장 현경민)가 주최·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제12회 2026 이어도 축제’가 지난 12일 연동 누웨마루거리 야외특설무대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와 미래세대의 한마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축제는 이어도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청소년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도심형 복합문화행사로 진행됐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2026 이어도청소년문화예술



경연대회’ 최우수상은 진제라(남녕고), 우수상은 피스퍼먼스(해동검도)·모쉬홀릭(댄스)이 수상했다.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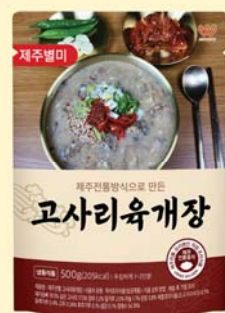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게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